

#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액보험 투자 정보 가이드

변액보험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펀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됩니다. 카디프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금융시장 전망 등을 확인하고 변액보험을 관리해보세요!

## CARDIF GUIDE <2019.5>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

■ 본 자료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제공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및 투자결과에 대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9-059호(2019.5.9)

## 01

### 국내 주식

##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우호적이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상단은 제한적

- 단기: KOSPI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스탠스에 우상향 기대. 위안화 강세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중국 증시와 동행성 높은 KOSPI에 우호적. 다만 내수 부진과 글로벌 반도체 가격 하락은 KOSPI 상승 제한 요인
- 중기: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중국 경기 바닥 기대감 등은 신항구 자산 선호심리 높여 KOSPI 레벨 높일 전망. 다만 글로벌 무역량 감소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시장 부진 이슈도 여전하기 때문에 상단은 제한될 전망

## 02

### 국내 채권

## 성장 전망치 하향 및 수급 요인으로 제한적 강세 전망

- 단기: 한국은행의 실제 기준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1분기 GDP 부진으로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임.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와 상관없이, 채권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속될 전망. 여전한 밸류에이션(valuation) 부담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간문제라고 인식하며 금리 상승시마다 꾸준히 대기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 5월 채권시장은 박스권 장세 예상
- 중기: 1분기 부진에 따른 반작용으로 2분기는 1%대 성장이 가능하겠으나, 건설 및 설비투자 부진과 승수효과가 낮은 정부 지출 증가 등을 감안하면 3~4분기 평균 성장률은 0%대 중반에 머무를 전망.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2.5%)는 추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임. 향후 6개월간 국내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편승해 소폭의 금리 하락 장세 예상

## 03

### 선진국 주식

##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는 우호적이나 밸류에이션은 부담

- 미국: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오름세 연장. 연준의 비둘기 파적인 기조가 이어진 점도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Economic Surprise Index)는 기준치를 하회하며 하락세가 이어져 경제지표가 시장 기대에 비해 미흡함을 시사. 기업 이익 개선 속도에 비해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17배까지 오른 데다, 연초 이후의 가파른 랠리로 기술적 부담이 높아져 주가 상단 제약 전망
- 유럽: 증시 밸류에이션이 14배에 육박하고 있으나 과거 5년 평균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중국 및 신흥국 경기 개선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해당 지역 익스포저가 높은 유로존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도 최근의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경기 반등 과정에서 0% 근처에 머물고 있는 독일 금리를 필두로 역내 금리가 서서히 상승하며 금융 주 비중이 높은 유럽증시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기대

## 04

### 신흥국 주식

## 인도 경제 기대감 긍정적, 중국은 경기부양책에 빠른 주가 상승 부담

- 인도: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인도 주가지수의 우호적인 시각은 지속될 전망. 5월 있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긍정적
- 중국: 미-중 무역분쟁 이슈 완화와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상해증시 우상향. 향후 미-중 무역분쟁 협상 결과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에 관심. 다만 최근 빠른 주가 상승은 단기적인 부담 요인

## 05

### 해외 채권

## 연준의 스탠스 변화는 우호적이나 현재 수준이 다소 과도

-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서면서 시장금리는 전반적으로 하향 압력이 두드러지는 상황. 다만 연내 금리 인하 전망까지 반영하고 있는 현재 금리 수준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 서서히 금리 하락폭 일부 되돌림 예상

## 06

### 원자재

## 수급 균형과 달러화 강세 완화에 원자재에 우호적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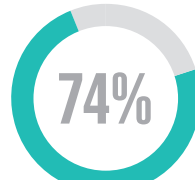
- 유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의 충실한 감산 이행과 베네수엘라, 리비아 및 이란발 공급 감소, 글로벌 경기 바닥 기대감에 유가는 우상향 지속할 전망. 다만 유가상승에 따른 증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실질금리 하락에 금 가격은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 최근 달러화 강세는 금 가격에 부담이지만, 달러화 강세 감안하면 금 가격 바닥으로 판단

## 안정추구형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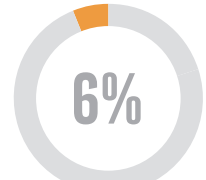
투자손실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고객입니다. 그래도 자산 중 일부는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마음은 필요합니다.



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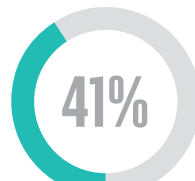
유동성자산

## 위험중립형 투자자

기대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자세를 갖고 있는 고객입니다. 고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적절한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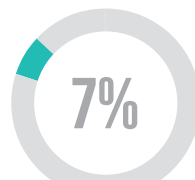
유동성자산

## 성장추구형 투자자

높은 기대수익을 위해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고객입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유동성자산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국내	주식	=	KOSPI는 마-중 무역분쟁 완화와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스탠스에 우상향 기대. 위안화 강세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중국 증시와 동행성 높은 KOSPI에 우호적. 다만 내수 부진과 글로벌 반도체 가격 하락은 KOSPI 상승 제한 요인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중국 경기 바닥 기대감 등은 신흥국 자산 선호심리 높여 KOSPI 레벨 높일 전망. 다만 글로벌 무역량 감소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시장 부진 이슈도 여전하기 때문에 상단은 제한될 전망
	채권	-	한국은행의 실제 기준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1분기 GDP 부진으로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임.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와 상관없이, 채권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속될 전망. 여전한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간문제라고 인식하면서 금리 상승시마다 꾸준히 대기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 5월 채권시장은 박스권 장세 예상	1분기 부진에 따른 반작용으로 2분기는 1%대 성장이 가능하겠으나, 건설 및 설비투자 부진과 승수효과가 낮은 정부 지출 증가 등을 감안하면 3~4분기 평균 성장률은 0%대 중반에 머무를 전망.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2.5%)는 추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임. 당초 당사(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가 예상했던 시기인 내년 1월보다 국내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향후 6개월간 국내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편승해 소폭의 금리 하락 장세 예상
해외선진	미국	-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오름세 연장.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기조가 이어진 점도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Economic Surprise Index)는 기준치를 하회하며 하락세가 이어져 경제지표가 시장 기대에 비해 미흡함을 시사. 기업 이익 개선 속도에 비해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17배까지 오른 데다 연초 이후의 가파른 랠리로 기술적 부담이 높아져 주가 상단 제약 전망	주가의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지난해 9월 대비 경기 여건이 강하지 않은 점은 우려를 자극하는 대목.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정책 기조가 주가 하단을 지지해줄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미국 증시 추가 강세보다는 선진증시 내에서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나며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 선진증시 내에서 미국 증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
	유럽	+	증시 밸류에이션이 14배에 육박하고 있으나 과거 5년 평균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중국 및 신흥국 경기 개선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해당 지역 익스포저가 높은 유로존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도 최근의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경기 반등 과정에서 0% 근처에 머물고 있는 독일 금리를 필두로 역내 금리가 서서히 상승하며 금융 주 비중이 높은 유럽 증시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기대	미국 경기는 서서히 둔화되고 유로존은 신흥국 경기 반등에 힘입어 반등하며 두 지역 간의 경기 흐름 차이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미국 증시보다는 유럽 증시의 상대적 강세가 기대돼 선진증시 내 비중 확대 시각을 제시
	일본	=	최근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의 정책 보다 글로벌 위험자산 투자 심리에 따라서 등락하는 모습. 엔/달러가 110엔을 상회하는 점은 일본 증시에 긍정적이거나 지난해 하반기 엔화 강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기업 실적 전망은 선진증시 내에서 가장 미약. 증시 상단 제약 우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 개선은 일본의 자본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10월 소비세율 인상 및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엔화 강세 재개 가능성 등은 일본 증시 투자 심리를 제약. 일본 증시에 대해 중립 의견을 유지

\* 투자매력도 : + 확대, = 중립, - 축소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해외이머징	브라질	=	친시장 성향의 보우소나루 정부의 향후 친기업, 연금개혁 등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음. 다만 연금개혁의 상하원 전체회의 통과는 불확실한 모습	보우소나루 정부에 대한 향후 시장 개방 및 연금 개혁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이나, 점차 구체적인 정책 시행에 주목할 필요. 연금 개혁 안의 상하원 통과에 주목할 필요
	러시아	=	최근 유가 반등에 러시아 증시에 대한 매력도도 높아지고 있음.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만한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이에 따른 자금 유입은 러시아 증시에 우호적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완화됨에 따라 금융환경에 민감한 러시아 증시 상승 지속될 전망. 또한, 글로벌 원유 수급 개선 전망에 러시아 증시는 완만한 우상향 전망
	인도	=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인도 주가지수의 우호적인 시각은 지속될 전망. 5월 있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긍정적	인도의 견조한 경제 성장 전망은 주식시장을 지지. 5월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의 승리 가능성 높은 점도 우호적. 다만 유가 강세는 인도 경제 불안 요인
	아세안	=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확대에 추가 우호적이었으나, 최근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상승세가 제한되는 모습. 글로벌 경기 반등 및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 여부가 중요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이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는 긍정적. 다만 글로벌 금융환경에 민감한 가운데, 달러화 강세 및 경기 둔화 우려 확대 여부에 주목할 필요
해외이머징	중국	=	미-중 무역분쟁 이슈 완화와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상해증시 우상향. 향후 미-중 무역분쟁 협상 결과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에 관심. 다만 최근 빠른 주가 상승은 단기적인 부담 요인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과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 전망에 중국 주식시장은 우상향 전망. 다만 중국 정부의 부양책 지속 여부와 미-중 무역분쟁 협상 결과가 향후 시장 방향성에 중요
	홍콩	=	미-중 무역분쟁 우려 완화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 확대에 홍콩도 우상향 지속될 전망. 다만 미-중 무역협상 타결 시일이 점차 미뤄지는 가운데 달러화 강세 움직임은 단기적 하방 요인	미-중 협상 타결 및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기대감은 긍정적이나 중국 경제지표 부진은 우려. 부정적인 협상 결과나 달러화 강세 지속 등 위험자산의 부정적 요인은 경계할 필요
해외채권	채권	=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으로 돌아 서면서 시장금리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 두드러지는 상황. 다만 연내 금리 인하 전망까지 반영하고 있는 현재 금리 수준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 서서히 금리 하락폭 일부 되돌림 예상	상반기 중 mini-cycle 상 경기 저점 형성 예상되며 견조한 고용 여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등 고려 시 완만한 금리 상승세 재개될 전망. 다만 미-중 무역분쟁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이슈가 빈번하게 부상 가능한 만큼 상단 제한 가능
대체투자	유가	=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의 총실한 감산 이행과 베네수엘라, 리비아 및 이란발 공급 감소, 글로벌 경기 바닥 기대감에 유가는 우상향 지속될 전망. 다만 유가상승에 따른 증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글로벌 경기 바닥 기대감과 미-중 무역분쟁 완화에 따른 수요 촉 우려 완화됨. 또한 사우디의 원유 감산과 베네수엘라 및 이란 이슈에 따른 글로벌 원유 공급 감소에 유가상승 지속될 전망. 다만 OPEC+ 증산 가능성은 유가 상단 제한할 전망
	금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실질금리 하락에 금 가격은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 최근 달러화 강세는 금 가격에 부담이지만, 달러화 강세 감안하면 금 가격 바닥으로 판단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실질금리 하락은 이어질 전망. 이는 금 가격에 우호적. 다만 달러화 강세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하락 및 위험 자산 선호심리는 금 가격 상단 제한할 것

\* 투자매력도 : + 확대, = 중립, - 축소

### EUROSTOXX50 지수

최근 발표된 2월 유로지역의 산업 생산치는 전월 대비 0.2% 감소했으나 0.5%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기존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였고, 발표된 4월 유럽 지역 제조업 PMI도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기준치인 50은 하회하였습니다. 연초 이후 자동차 수출 부진으로 독일의 생산활동이 줄곧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증가한 점이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EU 정상회담에서 10월 말까지 브렉시트의 데드라인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그전이라도 영국이 탈퇴 협정에 승인하면 바로 브렉시트를 허용하는 탄력적 연기 방안에 합의하였으나 노딜 브렉시트라는 꼬리 위험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 HSCEI 지수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예상을 상회하는 6.4%를 기록하였으며,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2% 증가한 반면 수입은 7.6% 줄어 4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맞물리며 무역수지는 326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 수출 증가는 작년 3월 수출 감소치의 기저효과 및 G2 무역갈등 완화 영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며, 1~3월 간의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해 지난달의 수출 급감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하였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은 타결 국면의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당국의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정책적 부양 효과는 2분기에 더욱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 NIKKEI225 지수

일본은행은 현행의 양질의 통화 완화정책을 유지하며 필요시 추가로 매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4월 니케이 제조업 PMI가 49.5를 기록하며 기준치인 50을 하회했으나 지난 2개월 연속 반등하고 있고,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하는 2월 경기선행지수는 1월보다 소폭 반등하는 등 최근 선행지수들이 반등하기 시작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남아있는 리스크는 그동안 미-중 협상으로 연기되어 왔던 미-일 무역협상의 재개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에서는 양국 간 협상 대상 품목이 최대 쟁점으로 예상됩니다.

제공: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어려운 용어... 한숨 쉬지 말고, 쉽게 알아보아요!

**밸류에이션(Valuation)?**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평가 가치를 이야기하며, 주식의 경우 PER(주가-순이익 비율)이나 PBR(주가-순자산가치 비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산업 군 안에서도 순이익 규모나 순자산 가치에 비하여 특정 주식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저(Exposure)?** 익스포저란 특정 기업 또는 국가와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로, 신용 사건 발생 시 특정 기업 또는 국가로부터 받기로 약속된 대출 및 투자 금액뿐 아니라 복잡한 파생상품 등 연관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말합니다.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Economic Surprise Index)?**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최근 경제지표의 흐름을 알려주는 지수입니다. 지수가 기준선인 0(중립)보다 높으면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보다 긍정적인 지표가 많았다는 뜻이며, 반대로 0보다 낮으면 전망치를 하회한다는 뜻입니다. 지표의 방향성이 경기 국면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프라이즈 지수가 하락하면 증시의 상승 탄력이 둔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글로벌 시장 상황 파악

이번 달 핫이슈 및 자산시장별 투자 전략 참고

STEP 01

## 나에게 맞는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 성향별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STEP 02

## 펀드 관리

수익률 관리, 투자위험 최소화를 위해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기능 활용

STEP 03

### 🔄 펀드 변경 안내

#### 변경 유형



#### 적립비율 변경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적립비율을 변경



#### 투입비율 변경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 적립비율+투입비율 변경

계약자적립금의 적립비율과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 변경 방법



#### My Cardif

홈페이지 : [www.cardif.co.kr](http://www.cardif.co.kr)  
APP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카디프생명' 또는 '마이카디프' 검색



#### 전화

콜센터 : 1688-1118



#### 은행/보험사 방문

보험상품 판매사 지점 또는 보험사 직접 방문

**기준일** 「펀드 변경 요구일 +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 적용  
\*영업일 기준은 개별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 횟수** 연 12회 이내 가능

**수수료** 없음(다만, 차후 약관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 가능)



### 📄 변액보험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액보험 계약은 중도해지 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